

남편이... 부모가... 잇단 가정파괴 ‘우울한 5월’

지적장애 70대, 말다툼 뒤 아내 토막 살해

1년 전 아들 버리고 허위 실종 신고

“잔소리한다”며 할머니 폭행 패륜도

5월 가정의 달을 무색하게 하는 끔찍하고 우울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반 평생 같이 살아온 아내를 토막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는가하면 세 살 배기 아들을 내다버린 뒤 책임을 면하기 위해 허위 실종신고를 하는 가정파괴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세 살 배기 아들 버리고 거짓 신고=1년전 버린 아들을 올 어린이 날에 잃어버린 것처럼 신고한 아버지가 경찰에 검거됐다.

광주시 남구 봉선동에 사는 K(30)

씨는 지난 5일 오후 7시20분께 광주시 북구 생동동 금호패밀리랜드에서 세 살 배기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여 성·아동·장애인 경찰지원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실종신고를 접수받은 북부경찰은 직원 70명을 급파해 금호패밀리랜드 놀이공원을 샅샅이 뒤졌으나 찾지 못했다. 경찰은 K씨 아들의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금호패밀리랜드 안에 설치된 CC-TV(폐쇄회로)를 확인한 결과, K씨와 K씨의 어머니 단 둘이

놀이공원을 찾은 사실을 알아냈다.

경찰은 또 K씨가 지난해 5월 6일 새벽 5시30분 북포시 용해동 한 아동 보호시설 앞에 자신의 아들을 버리고 도망간 사실을 파악했다. 북부경찰은 이날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목포경찰에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

K씨는 경찰에서 “2년 전 이혼한 뒤 세 살 배기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내 토막 살해 뒤 유기=농사를 짓는 K(73·지적장애 3급)씨는 지난 29일 오후 7시30분께 화순군 동면 자신의 집 창고 앞에서 아내 L(67)씨와 말다툼을 했다. 이날 다툼은 “왜 시킨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느냐”는 아내의 핀잔이 발단이 됐다. 결국, 싸움은 돈 문제로까지 번졌다.

일을 마치고 돌아온 아내는 K씨에게 “옷 속에 숨겨놓은 돈을 달라”며 따졌고, K씨는 이를 거절했다. K씨는 40여 년 전 L씨와 결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K씨는 아내가 계속 따지자, 창고 안에 있던 둔탁한 도구를 꺼내와 아내의 발등을 내리친 뒤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K씨는 이후 냉각고, 하수구, 밭 등에 아내의 사체를 넣어두거나 유기했다. K씨는 아내가 며칠 간 보이지 않은 것을 이상히 여긴 주민의 신고로 화순경찰에 붙잡혔다. 화순경찰은 지난 2일 K씨를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했다.

◇90대 할머니 때린 20대 손자=지난달 30일 오전 7시30분께 무안군 일로읍 L(25)씨의 집, 아침식사 직후 점

심 밥을 짓던 L씨는 친할머니(94)에게 “점심식사 준비를 벌써 하느냐”라는 잔소리를 들었다. L씨는 할머니·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으며, 당시 L씨의 아버지는 광주의 한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중이었다.

화가 난 L씨는 자신의 주먹으로 할머니의 얼굴과 가슴을 각각 한 차례씩 때렸다. L씨는 4~5년 전에도 아버지·할머니를 폭행한 적이 있으며, 지난 4월 초 공갈죄로 10개월 형을 산 뒤 출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L씨는 할머니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무안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2일 L씨를 존속상해 혐의로 구속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무안=김민준기자 jun@

긴급조치 피해자 일괄구제

민변, 비상상고 청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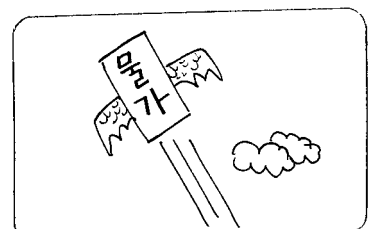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긴급조치변호단(이석태 단장)은 6일 채동욱 검찰총장에게 유신시대 긴급조치 1·4·7·9호 피해자들에 대해 대법원에 비상상고해줄 것을 청원했다.

비상상고는 확정된 판결이 법령에 어긋난다는 사실이 발견될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다시 심리를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비상구제절차다.

민변은 비상상고 청원이 받아들여질 경우 일괄구제를 받을 수 있는 피해자가 400~6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변은 채 총장이 90일 안에 아무런 답변이 없으면 헌법소원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8810
원침 김장두



황급한 대피

6일 화재가 발생한 광주시 광산구 평동 산단 한 보온재 제조 공장에서 여직원이 두 손 가득 서류통치를 든 채 황급하게 대피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뷔페 좋아했는데... 수입고기 국내산 둔갑

전남 농관원, 예식장·뷔페식당 등 30곳 적발

“뷔페식 식당 쇠고기가 한우였어요? 하지만 원산지는 제대로 표시해야 하지 않나요?”

최근 행락·결혼철을 맞아 뷔페 음식점 이용객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수입산 쇠고기로 조리한 떡갈비를 국내산 육우로 거짓 표시해 고객에게 제공하는 등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파렴치 업소들이 무더기

로 적발됐다.

6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이하 농관원 전남지원)에 따르면 농관원 전남지원은 결혼 시즌 및 가정의 달을 맞아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예식장 음식점 등에 대해 지난 16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식재료에 대한 원산지 집중 단속을 실시, 위반 업체 30곳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30곳 중 수입산 쇠고기로 조리한 떡갈비를 국내산 육우로 거짓 표시해 결혼식 하객에게 뷔페식으로 제공한 광주의 한 웨딩홀 뷔페식당 대표 A(57)씨 등 11명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9곳에 대해서는 2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번엔 적발된 업소들은 뷔페 이용객들이 음식에 사용한

재료의 원산지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 국내산과 외국산을 육안으로 쉽게 구별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값싼 수입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부당 이익을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별로는 결혼식당 6곳(20%), 장례식당 2곳(6.7%), 일반 뷔페 식당 등 기타 22곳(73.3%)이다.

적발품목 비중별로는 쇠고기 2건(6.7%), 돼지고기 5건(16.7%), 닭고기 4건(13.3%), 오리고기 2건(6.7%), 표고버섯 4건(13.3%), 배추김치 2건(6.7%), 쌀 3건(10.0%) 기타 8건(26.6%) 순이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평동산단 보온재 공장 큰 불

샌드위치 판넬 건물 2동 붕괴

6일 오후 3시20분께 광주시 광산구 옥동 평동산단 내 한 보온재 제조 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공장 건물 5동 중 2동이 무너지고 한 동이 전소했다.

이 불은 공장 옆에 위치한 다른 공장으로 옮겨 붙어 총 5개 동을 태운 후 출동한 119에 의해 진화됐다.

당시 근무하던 직원들은 “불이 났다”는 소리를 듣고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출동한 소방 관계자는 “건물 외벽

이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판넬 구조로 돼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서는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 2월 22일에도 평동산단 내 한 전자제품 부품공장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나 공장건물 1개동(990㎡)과 전자제품 등을 태우는 등산단 내 화재로 인한 피해가 이어져 자 강력한 소방·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충남장학사 시험비리 교육감 선거자금 때문”

경찰, 교육감 등 46명 사법처리

충남교육청 장학사 시험 돈거래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은 이번 사건을 김중성 충남교육감의 차기 선거 자금 마련을 위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는 6일 장학사 선발 시험 문제 유출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 김 교육감 등 모두 46명을 적발, 6명을 구속하고 39명 불구속, 1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충남교육청의 중등 장학사 선발 시험 과정에서 문제를 유출하고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교육청 소속 장학사들이 지난 2011년에

도 일부 응시 교사를 합격시키라는 김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돈을 받고 문제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

찰을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2011년 10월에 교육청 감사 담당 장학사 김모(50·구속)씨에게 선거 당시 공이 많은 한 사립학교 체육교사 이모(47)씨 등 3명을 합격시키라고 지시했다.

김씨는 인사담당 장학사 조모(52·구속)씨, 태안교육지원청 장학사 조모(47·구속)씨, 천안교육지원청 장학사 박모(46·사망)씨와 공모해 시험 예상 문제를 만들어 이씨에게 전달, 예상 문제가 출제될 수 있도록 문제 출제위원을 포섭하는 수법으로 시험 문제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대현 충남경찰청 수사2계장은 “김 교육감이 측근인 김 장학사에게 선거자금을 마련하라고 여러 차례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방송인 비앙카 대마초 입건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대마초를 관매·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인디밴드 A 그룹 멤버 신모(34)씨와 노모(30·공익근무요원)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또 대마초를 피우거나 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미국 국적 방송인 비앙카 모블리(여·24)씨와 아이돌그룹 DMTN의 멤버 최다니엘(22)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뉴스

“상품권 싸게 판다” 인터넷 사기

8810
원침 김장두

○...목포경찰은 6일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를 이용해 금품절이·백화점 상품권 등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20)씨를 구속.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번개장터, 헬로마켓에 금품절이 등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놓고 10명으로부터 430만 원을 가로챈 혐의.

○...경찰 조사결과 가석방 기간 만료 6일 만에 붙잡힌 김씨는 최근 2년간 사기죄로 3번이나 구속됐는데, 경찰에서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CJ 헬로비전 www.cjhellovision.com

디지털 방송의 모든 것이 자신있다

디지털 멀티플레이어,

헬로tv

hello tv

- 국내 최대 220여 개 채널 보유
- 생생한 지역정보
- 불거리가 풍부한 VOD 콘텐츠
- 클라우드 게임, 노래방, 쇼핑 등 편리한 부가기능
- 쉽고 편리한 이용법
- 2시간 만에 다시보는 지상파방송

▶ 헬로tv ▶ 헬로넷 ▶ 헬로폰

SAVE 최대 56%

1588-3450

디지털 방송은 헬로tv

※ 위의 할인율은 가입 조건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시공전 / 단열메이스커시공 2 단열메이스커시공 / 트라이슈머시공 3 트라이슈머 시공 후 4 시공 후

특허방수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시험회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트라이슈머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단열복합시트

하자없이 20년은 너끈히가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2중단열 방수 천정 결로방지 절연방식 시공 내구성 탁월

태양열차단 냉기차단 여름철 실내온도 3~5℃ 겨울철 실내온도 3~5℃ 전기료 30~40% 난방비 15~20%

냉방비 절감 난방비 절감

냉·난방문제! 방수와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본사 전속모델 탈렌트 이영후

IPALG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